

『闡義昭鑑診解』의 異本에 대한 고찰

이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조교수, 한국어학 전공

zeezero@aks.ac.kr

- I. 머리말
- II.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텍스트 구조 비교
- III.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번역 비교
- IV. 『闡義昭鑑診解』에 나타나는 근대국어 문법의 양상
- V. 맺음말

I. 머리말

『闡義昭鑑』은 1755년 영조의 명으로 간행된 것으로, 1721년에서 1755년까지 討逆의 사실을 모아놓은 것이다.¹⁾ 이는 亂賊을 징계하고 倫綱을 바로잡는 義를 闡明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해 『闡義昭鑑諺解』 필사본이 나왔고, 그 이듬해 『闡義昭鑑諺解』 목판본이 간행되었다.²⁾

국어학 분야에서 『闡義昭鑑諺解』는 18세기 중반의 언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한문 원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번역한 두 종류의 이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홍윤표(1984)와 정승철(1990)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논의인데, 이들 논의에서는 주로 서지적 고찰, 표기, 음운 등을 중심으로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을 고찰하였고, 형태와 문법에 관련된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승철(1990)에 따르면, ‘ㄷ’ 구개음화나 원순모 음화 표기, 부사형어미 ‘-아/어’의 교체, 조사 결합의 다양성 측면에서 『闡義昭鑑諺解』 목판본은 필사본에 비해 보수적 경향을 보이지만, 관형절 주어의 격 형태에서는 필사본이 목판본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전이어의 사용, 한문 어구나 한자어의 사용 빈도에서는 목판본이 의역체이면서도 한문 원전에 충실하려는 축자역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필사본은 직역체를 보이는 경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은, 번역과 문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을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闡義昭鑑』(장서각본, K2-297)과 『闡義昭鑑諺解』 필사본(규장각본, 奎2214)과 목판본(규장각본, 奎1118)이다.³⁾

1) 『闡義昭鑑』에 대한 일반적인 해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1981) 144-145쪽을 참고할 수 있다.

2) 홍윤표는 『闡義昭鑑』의 편찬과 『闡義昭鑑諺解』의 인쇄 작업이 1755년에 이루어졌으나, 『闡義昭鑑』改鑄甲寅字本과 『闡義昭鑑諺解』 목판본은 1756년에 간행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승철과 옥영정은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諺解』 필사본은 1755년에, 『闡義昭鑑諺解』 목판본은 1756년에 간행된 것으로 보았다. 홍윤표, 「『闡義昭鑑諺解』 해제」, 『闡義昭鑑諺解』(영인본)(홍문자, 1984), 1-10쪽; 정승철, 「『闡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규장각』 13(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0), 39-58쪽; 옥영정, 「『闡義昭鑑』의 간행 과정과 서지적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0년 제3차 국내학술회의발표 원고(2010).

본고의 논의는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텍스트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체제 및 배열 순서와 텍스트의 구분 및 구분 표지를 비교하여 『闡義昭鑑』에 대한 『闡義昭鑑診解』 필사본과 목판본의 대응 양상을 살펴본다. 둘째는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번역을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闡義昭鑑』을 번역한 『闡義昭鑑診解』 필사본과 목판본이 주석 및 내용, 어휘, 통사구조의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는 『闡義昭鑑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에 드러난 근대국어 문법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II.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텍스트 구조 비교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 필사본 및 목판본의 텍스트 구조는 체제 및 배열 순서, 그리고 텍스트 구분을 나타내는 구분 표지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먼저 『闡義昭鑑』(K2-297)과 『闡義昭鑑診解』 필사본(奎2214), 목판본(奎1118)의 체제 및 배열 순서를 보이면 표1과 같다.⁴⁾

표1-『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체제 비교

구분	한문본(K2-297)	필사본(奎2214)	목판본(奎1118)
제1책	手書批答	슈서비답	
	御製諭纂修諸臣	어제유찬슈제신	어제유찬슈제신
	繪音	눈음	눈음
	進闡義昭鑑笏子	진천의소감차즈	진천의소감차즈
	進闡義昭鑑箋	진천의소감전	진천의소감전
	闡義昭鑑凡例	천의소감범네	천의소감범네
	闡義昭鑑卷之一	천의소감권지일상	천의소감발

3) 본고에서 대상 자료로 삼은 『闡義昭鑑診解』 필사본과 목판본은 홍문각에서 1984년에 영인한 바 있다.

4) 『闡義昭鑑診解』 필사본과 목판본의 체제 및 배열 순서에 대한 비교는 홍윤표와 정승철이 정리한 바 있다. 홍윤표는 필사본(奎2214)과 목판본(奎1118, 奎5437)을 비교하였고(홍윤표, 앞의 글, 5쪽), 정승철은 필사본(奎2214)과 목판본(奎1118/奎1119, 奎5437)을 비교하였다(정승철, 앞의 글, 44쪽).

표1-계속

구분	한문본(K2-297)	필사본(奎2214)	목판본(奎1118)
제2책	闡義昭鑑卷之二	천의소감권지일하	천의소감언허권지일
	闡義昭鑑卷之三	천의소감권지이	
제3책	闡義昭鑑卷之四	천의소감권지삼	천의소감권지이
	闡義昭鑑跋	천의소감권지스	천의소감권지삼
	奉教纂修諸臣		
제4책		천의소감권지스하	천의소감권지스
		천의소감발	
		봉교찬슈제신	

필사본은 『闡義昭鑑』의 체제 및 배열 순서와 유사하지만, 필사본은 권1을 ‘천의소감권지일상’과 ‘천의소감권지일하’로, 권4를 ‘천의소감권지스’와 ‘천의소감권지스하’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필사본의 ‘권지일하’는 ‘鄭滌의 疏’인 ‘壬寅기사’에서 시작되며, 필사본의 ‘권지스하’는 ‘沈鼎衍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시작된다. 목판본은 ‘手書批答’이 그 내용만 ‘진천의소감차즈’의 뒤에 수록되어 있으며, ‘闡義昭鑑跋’의 순서가 달라지고, ‘奉教纂修諸臣’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필사본이 『闡義昭鑑』의 체제 및 배열 순서와 유사하며 목판본은 이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다음으로 텍스트 구분을 나타내는 구분 표지를 비교해보자. 『闡義昭鑑』의 텍스트 구조는 크게 보면, 사실 기사와 그에 대한 평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 평론 부분은 『闡義昭鑑』 및 『闡義昭鑑診解』에서 모두 2칸을 내려 쓰는 ‘줄 바꿈’의 형식을 사용한다. 사실 기사의 텍스트는 ‘辛丑, 壬寅’과 같은 干支, ‘○’ 표지와 같은 별도의 구분 표지를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구분 표지의 양상은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경우가 다르다. 『闡義昭鑑』은 간지와 ‘○’ 표지로 텍스트를 구분하고, 『闡義昭鑑診解』 필사본과 목판본은 ‘○’ 표지로 텍스트를 구분하고 있다. 『闡義昭鑑』에서 간지로 텍스트를 구분하는 경우는 『闡義昭鑑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텍스트 구분 표지 없이 줄을 바꾸기만 하며, 대신 해당 간지를 본문 안에 주석으로 삽입하는 형식을 취한다.

5) 이에 대해 옥영정은 『闡義昭鑑診解』를 “필사본으로 처음 제작할 때 한문본의 편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배포를 위하여 간행하는 시점에는 다시 편집체제를 조정하여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추정한 바 있다(옥영정, 앞의 글, 58-59쪽).

『闡義昭鑑』에서 ‘○’ 표지로 텍스트를 구분하는 경우는 『闡義昭鑑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동일하게 ‘○’ 표지로 텍스트를 구분하며, 줄을 바꾸지는 않는다.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에서 이러한 텍스트 구분과 그 표지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지만, 드물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목판본, 필사본이 보여 주는 텍스트의 구분을 권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2-1과 같다.

표2-1-『闡義昭鑑』과 『闡義昭鑑診解』의 텍스트 구분 비교

권차	구분 표지	한문본	필사본		목판본
			상	하	
권1	干支	3	1	2	3
	○ 표지	16	9	3	16
	표지 없음	0	4		0
권2	干支	2	2		2
	○ 표지	31	29		30
	표지 없음	0	2		1
권3	干支	6	6		6
	○ 표지	1	1		1
	표지 없음	0	0		0
권4	干支	1	1	0	1
	○ 표지	50	21+1 ⁶⁾	24	50
	표지 없음	1	3	2	1

이를 보면, 텍스트의 구분 양상이 한문본과 목판본이 가깝고, 필사본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문본과 목판본의 텍스트 구분과 그에 따른 구분 표지의 사용은 권2의 ‘○’ 표지만 제외하면 동일하다. 반면 필사본의 경우는 권3의 경우만 동일할 뿐, 그 외는 차이가 나타난다.

한문본을 기준으로 하여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표2-2와 같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필사본은 목판본에 비해 한문본의 텍스트 구분과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특히 권4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진다.

6) ‘21+1’로 표시한 것은 한문본과 목판본에는 없던 ‘○’ 표지를 필사본에서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표2-2-『闡義昭鑑諺解』의 텍스트 구분 비교

	구분 표지	해당 내용	장차
목판본	○ 표지 없고, 1칸 내려 씌	甲辰 기사 중 “備忘記”	2:11ㄱㄴ
	○ 표지 없고, 줄 비꿈	辛丑 기사 중 “兩司의 啓辭”	1상:28ㄴ-29ㄱ
필사본	○ 표지 없고, 줄 비꿈	壬寅 기사 중 “金一鏡의 上疏 관련 내용”	1하:8ㄱ
	○ 표지 없고, 줄 비꿈	壬寅 기사 중 “尹聖時 등의 啓辭”	1하:11ㄱㄴ
	○ 표지 없고, 줄 비꿈	壬寅 기사 중 “10월 誣獄 후 결과”	1하:13ㄱ
	○ 표지 없고, 줄 비꿈	甲辰 기사 중 “李巨源이 아뢴 내용”	2:6ㄱ-8ㄱ
	○ 표지 없고, 줄 비꿈 ⁷⁾	乙巳 기사 중 “諫院의 啓辭”	2:20ㄴ-21ㄴ
	○ 표지 없고, 줄 비꿈	乙亥 기사 중 “林天大의 供招”	4:1ㄱㄴ
	○ 표지 없고, 줄 유지	乙亥 기사 중 “李孝植의 供招”	4:2ㄴ-3ㄱ
	○ 표지 없고, 줄 비꿈	乙亥 기사 중 “金沈의 供招”	4:16ㄴ
	○ 표지 추가	乙亥 기사 중 “申景勳의 鞠問 후 결과”	4:33ㄴ
	○ 표지 없고, 권차 변경	乙亥 기사 중 “沈鼎衍 사건 관련 내용”	4하:1ㄱㄴ
	○ 표지 없고, 줄 비꿈	乙亥 기사 중 “尹惠의 鞠問 관련 내용”	4하:5ㄱ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諺解』의 텍스트 구조에 대한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 체재 및 배열 순서와 같은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한문본과 필사본이 유사하며, 텍스트 구분 표지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는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한문본과 목판본이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III.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諺解』의 번역 비교

III절에서는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諺解』를 번역의 측면에서 비교하기로 한다. 이에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될 것이다. 첫째는 한문본의 주석 및 내용의 반영 양상이고, 둘째는 어휘의 비교이며, 셋째는 통사구조의 비교이다.

1. 주석 및 내용의 비교

먼저 주석의 번역 양상을 보자. 『闡義昭鑑』과 『闡義昭鑑諺解』에서 주석은 간지, 인명, 관직명, 본문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등을 내용으로

7) 한문본에서 해당 부분은 ‘○’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의 시작은 다른 경우와 달리 2칸을 내려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 표지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탈획된 것으로 보인다.

하여 본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드물지만 본문의 어휘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한문본의 주석이 필사본과 목판본에 반영되어 있는 비율을 보면, 한문본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목판본이다.

한문본의 주석은 모두 131개가 있는데, 이 중 목판본은 128개(97.7%)를, 필사본은 110개(84.0%)를 반영하여 번역하고 있다. 목판본은 필사본에 비해 한문본의 주석을 반영하는 비율이 더 높는데, 이는 목판본만 한문본의 주석을 반영한 경우는 18개이지만 필사본만 한문본의 주석을 반영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한문본의 주석을 목판본이나 필사본에서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관직명이나 부연 설명을 나타내는 주석인데,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모두 반영하지 않은 주석은 부연 설명과 관련된 주석뿐이다.

반면 한문본에는 주석이 없는데, 목판본이나 필사본에서 주석이 추가된 경우도 있다. 추가된 주석은 모두 38개인데, 필사본과 목판본이 공통적으로 추가한 경우가 28개(73.7%), 목판본만 추가한 경우가 1개(2.6%), 필사본만 추가한 경우가 9개(23.7%)이다. 필사본과 목판본이 공통적으로 추가한 주석은 모두 인명에 관련된 것이고, 목판본만 추가한 주석은 어휘에 관련된 것이며, 필사본만 추가한 주석은 어휘, 인명, 설명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으로 필사본과 목판본이 한문본의 내용을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번역하는 예들을 보자.

(1) ㄱ. • 與汝洞內故 閑時則往見 汝豈不爲此言乎 **稷穀及年年所聚穀欲以爲軍糧者非耶**

• 널도 더부러 동년고로 한가흔 새면 가 보니 네 엿디 이 말을 아니흔다 **계곡과 모든 곡식을 군량히렸노라 아니히더냐** <木 4:14 ㄱ-ㄴ>

• 널도 더부러 동년기의 한가흔 새면 가 보니 네 엿디 이 말을 아니흔다 <筆 4:11 ㄱ-ㄴ>

ㄴ. • 何待昨日 **入覽** 推案招辭然後知之也

• 엿디 어제 날 튜안토스를 기다린 후 알리오 <木 2:33 ㄴ>

• 엿디 어제 날 튜안토스를 **드러 보기를** 기다린 후의 알리오 <筆 2:24 ㄱ>

ㄷ. • 鳳輝泰 壽就商師尙疏下諸賊追施 **逆律** 之請誠是矣誠是矣

• 봉휘 태구 취상 스상 소하제적을 **역률을** 튜시히자 히는 청이 진실노 올코 딘실노 올흔디라 <木 4:26 ㄴ>

• 봉휘 태구 취상 스상 소하제적을 튜시히자 히는 청이 진실노 올코 진실노 올흐니 <筆 4:20 ㄴ>

한문본의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는 (1)의 ㄱ처럼 문장이 생략되는 경우, (1)의 ㄴ, ㄷ처럼 구(혹은 단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들을 기준으로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비교해보면, 필사본이 목판본보다 훨씬 더 많이 생략된다.

다음의 (2)는 내용이 생략됨으로써 번역문의 통사구조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인데, 이 때문에 단순한 내용의 생략에 그쳤던 (1)의 예보다 좀 더 복잡한 통사구조를 보여준다.

- (2) ㄱ. • S1[希哲妻媿㉞兄弟㉟多輪回往來] S2[㉞而其㉟中名明祚爲普昱之繼子者在羅州時相親往來矣]
- S1[희철의 처남 ㉞형제 ㉟즈로 다녀 가며 왕년호되] S2[㉞그 등 일흠은 명조요 보옥의 양즈된 재 나귀 이실 세의 서로 친하여 왕년호고] 〈木 4:6ㄴ-7ㄱ〉
 - S1[희철의 처남 ㉞형제 ㉟들 명좌 보옥의 양즈된 재 나귀 이실 세에 서로 친하여 왕년호더이다] 〈筆 4:5ㄴ〉
- ㄴ. • S1[其搜探文書㉞有㉟日記冊] S2[㉞其㉟中㉟所錄有犯上絕悖之事]
- S1[그 수탐흔 문서의 ㉞일기책이 ㉟이시니] S2[㉞그 ㉟등 ㉟기록흔 거시 범상절패흔 일이 잇는다라] 〈木 4:52ㄴ〉
 - S2[그 수탐흔 문서 ㉟등 ㉞일기책에 ㉟기록흔 거시 범상절패흔 일이 이시니] 〈筆 4:5ㄱ〉

(2)의 ㄱ의 한문본은 두 문장의 접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판본은 한문본의 내용과 통사구조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필사본의 경우 한문본의 ㉞와 ㉟를 생략하고 바로 ㉞와 ㉟를 연결하여 번역하고 있어, 전체 문장은 S1과 S2의 접속문이 아니라 단문으로 번역되었다. (2)의 ㄴ의 한문본도 두 문장이 접속되어 있는데, 목판본은 이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필사본은 ㉞와 ㉟를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㉞와 ㉟의 어순을 바꾸어 번역하였다.

한문본에 없던 내용과 단어가 추가되는 경우는 (1)과 같은 생략의 경우에 비해서 극히 드물긴 하지만, 주로 인명, 지시관형사, 부사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다.⁸⁾ 그러나 이러한 예들의 빈도는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8) 그중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권익관은 곳 신임년 흉도라(益寬卽辛壬凶徒之一) 〈筆 3:11ㄱ〉

ㄴ. 디 물과 범의 직변을 듯고 별노 우회흔 일이 업스되(志聞馬虎之災無憂喜) 〈筆 4:6ㄱ〉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한문본의 주석 및 내용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2. 어휘의 비교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처럼 이본이 존재하는 문헌의 번역 문체를 비교하는 경우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한자어의 비율이다. 이것은 해당 번역이 직역이나, 의역이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정승철(1990: 55-57)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은 목판본에 비해 한자어와 한문 원문의 어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⁹⁾

이 외에 『**闡義昭鑑諺解**』에 보이는 어휘의 특징으로는 訓借표기를 한 고유어와 이두식 단어¹⁰⁾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芹洞, 근동(木 4:60ㄱ), 미나리골(筆 4하:11ㄴ-12ㄱ), ‘蛤洞, 합동(木 4:55ㄴ), 조개(筆 4하:8ㄴ), ‘禿同, 뿔동(木 4:9ㄴ), 뿔동(筆 4:7ㄴ)’ 등의 예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명이나 인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闡義昭鑑諺解**』에서는 그리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두식 단어의 예는 『**闡義昭鑑**』의 한문본 자체에 이두식 단어가 나타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자백을 승인해서 조서에 날인하는 일’ 혹은 ‘조서’를 뜻하는 ‘**倂音**, 다딤(筆 4하:10ㄴ)¹¹⁾과 ‘나리’를 뜻하는 ‘**進賜**, 진스(木 3:9ㄴ), 진스(筆 3:7ㄴ)’의 예를 들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文字’와

ㄷ. **이 식량의 니를** ㄱ만이 곶아(𪎐牙蜜窩) (筆 箋 5ㄱ)

9) 정승철은 ‘한문 원문의 어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축자역’을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전자는 직역의 특성으로서 『**闡義昭鑑諺解**』 필사본에 나타나며, 후자는 ‘원전을 중시한 것’으로서 목판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정승철, 앞의 글). 본고의 논의에서 ‘축자역’과 관련된 내용은 ‘한문 원문 내용의 반영’과 관련하여 Ⅲ.1에서 다루었다.

10) ‘各別’, ‘根脚’, ‘物故’, ‘分揀’ 등도 이두식 단어로 볼 수 있지만, 이들은 단순한 한자어로 파악하였다. 다만 ‘分揀’의 경우 ‘특별히 분간하여 방석하니(特爲分揀放釋) (木 4:37ㄱ)’에서와 같이 ‘죄를 지은 형편을 보아서 용서하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현대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들과는 구분된다.

11) 다음의 예와 같이 ‘倂音’은 목판본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필사본에서만 이두식 단어로 번역하였다.

- 제 쏘흔 디만을 두고(渠亦遲晚**倂音**) (木 4:58ㄴ)
- 지만 **다딤**을 두고(渠亦遲晚**倂音**) (筆 4하:10ㄴ)

‘臣’의 예를 들 수 있다.

‘文字’는 『闡義昭鑑診解』에서 ‘문서’와 ‘글자, 성구’의 뜻으로 모두 쓰이는데¹²⁾, ‘文字’가 ‘문서’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이두식 표기를 보이는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다음 (3)은 ‘文字’가 ‘문서’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闡義昭鑑診解』에서 ‘文字’는 대체로 ‘문즈, 문쯔’ 등으로 번역되지만, (3)의 ㄴ과 같이 ‘글’로 번역된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

- (3) ㄱ. • 臣祖疏章等**文字** 送置相親家
• 신조의 소장 **문즈**를 상친헌 집의 보내여 두고 <木 4:15ㄱ>
• 의조의 소장 **문쯔**를 상친헌 집의 보내여 두고 <筆 4:12ㄱ>
- ㄴ. • 北使知會**文字**其意不可測
• 북스의 지회하는 **글**이 그 뜻을 가히 측량티 못홀디라 <木 1:15ㄴ>
• 북스의 지회하는 **글**이 그 뜻을 가히 측량티 못홀디라 <筆 1상:12ㄱ>

『闡義昭鑑診解』의 이두식 단어로 대표적인 것은 ‘臣’의 번역과 관련된 것이다. ‘臣’이 1인칭대명사로 쓰인 경우 목판본에서는 ‘신’으로, 필사본에서는 ‘신, 의신’으로 번역한다.¹³⁾ 필사본에서 ‘臣’이 ‘의신’으로 번역되는 경우는 모두 공초(供招)와 관련된 내용에서만 나타나는데¹⁴⁾, 필사본의 ‘의신’은 이두식 단어인 ‘矣身’이다.¹⁵⁾

다음 (4)는 심정옥(沈廷玉)의 공초로서, 같은 문맥에서도 ‘신’과 ‘의신’으로 달리 번역되기도 하였음을 보인다.

12) 다음은 ‘文字’가 ‘글자, 성구’의 뜻으로 쓰이는 예인데, 『闡義昭鑑診解』에서 이러한 예는 ‘문서’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극히 적다.

- 外於兩疏若教文敢引用陰修**文字**
- 밧기로 두 상소와 교문의 감히 음참홀 **문쯔**를 인증하야 써 <木 1:68ㄱ>
- 밧기로 두 상소와 교문의 감히 음참홀 **문즈**를 인증하야 써 <筆 1하:8ㄴ>

13) 필사본에서 ‘신’은 72회, ‘의신’은 243회로 1인칭대명사 ‘臣’을 ‘의신’으로 번역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14) 필사본의 권4에서 ‘臣’을 ‘의신’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권4의 내용이 대부분 공초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15) ‘臣’에 대한 필사본과 목판본의 이 같은 번역의 차이는 이와 관련된 ‘臣父’, ‘臣祖’의 번역에서도 이어진다. 『闡義昭鑑』에서 ‘臣父’는 3회, ‘臣祖’는 2회가 나타나는데, 목판본에서는 이들을 각각 ‘신의 부/신부, 신조’로 번역하고 필사본에서는 ‘의부, 의조’로 번역한다.

- (4) • **臣**與一鏡同會尙儉家爲一矣 一鏡之來訪**臣**家亦一矣
- **신이** 일경으로 더브러 상검의 집의 훈가디로 모히기는 **훈** 번이오 일경이 **신의** 집의 찻기도 또 **훈** 번이오니 〈木 2:50ㄱ〉
 - **의신이** 일경으로 더브러 상검의 집의 모히기는 **훈** 번이오 일경이 **신의** 집의 와 찻기도 또 **훈** 번이오니 〈筆 2:36ㄱ〉

어휘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현상으로 인명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 ‘이’가 있다. 『**闡義昭鑑診解**』 필사본에서는 인명 뒤에 접미사 ‘이’를 결합하여 번역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목판본에서는 이러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5)는 그 예이다.

- (5) ㄱ. • 虎龍既告**白望** 白望亦告**虎龍**
- 호룡이 이미 **빅망을** 고하고 빅망이 또 **호룡을** 고하야 〈木 1:61ㄱ나〉
 - 호룡이 임의 **빅망이를** 고하고 빅망이 또 **호룡이를** 고하야 〈筆 1하:3나〉
- 나. • **白望**爲東宮告變
- **빅망은** 동궁을 위하와 고변하엿거늘 〈木 1:63나〉
 - **빅망이논** 동궁을 위하와 고변하엿거늘 〈筆 1하:5나〉
- ㄷ. • 臣以此言于**光哲**
- 신이 일노써 **광철드려** 니르니 〈木 4:8ㄱ〉
 - 의신이 일노써 **광철이드려** 니르니 〈筆 4:6나〉

이상의 논의를 보면, 『**闡義昭鑑診解**』 목판본과 비교할 때 필사본은 학문 원문에 대한 직역의 경향, 이두식 단어의 사용, 그리고 접미사 ‘이’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는 어휘의 구어적 사용 양상을 그 특징으로 함을 알 수 있다.

3. 통사구조의 비교

여기서는 『**闡義昭鑑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이 『**闡義昭鑑**』의 통사구조를 각각 다르게 번역한 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서술어의 논항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문장 간의 관계를 다르게 이해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필사본과 목판본의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으로써 필사본과 목판본의 번역 경향을 일반화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여기서는 몇몇

예를 제시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6)은 서술어의 논항을 다르게 이해한 경우이다. 한문본의 ‘言’을 목관본에서는 ‘던ㅎ-(傳)’의 목적어로 파악하여 번역하였지만, 필사본에서는 ‘傳’과 ‘言’ 모두 서술어로 파악하여 번역하였다.

(6) • 金履輅亦當傳言矣

• 김니뢰도 쏘흔 **이 말을 던ㅎ더이다** <木 3:9ㄴ>

• 김니뢰도 쏘흔 **전ㅎ야 니뤄옴더이다** <筆 3:7ㄴ>

(7)은 한문본의 ‘誣及’에 대해 필사본과 목관본이 각기 달리 이해하여 번역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목관본에서는 ‘誣及NP’를 ‘무ㅎ미 NP에 맞’으로 이해하여 ‘誣’는 NP로, ‘及’은 서술어로 번역하였지만, 필사본에서는 ‘誣及’을 ‘무급ㅎ’로 이해하여 ‘NP에 무급ㅎ’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따라 ㉗와 ㉘를 접속구조로 번역한 목관본과 ㉗가 ㉘에 관형절로 내포되는 구조로 번역한 필사본의 차이가 나타난다.

(7) • 書中㉗誣及予身㉘語極陰惡 旨意所注路人亦知

• 그 서툼에 ㉗**무ㅎ미 내 몸에 미츠되** ㉘**말이** 극히 음특ㅎ야 지의 잇는 바를 노인도 쏘흔 알 써시오 <木 2:66ㄴ>

• 그 서툼의 ㉗**내 몸에 무급ㅎ** ㉘**말이** 극히 음특ㅎ야 지의 소취 노인도 쏘흔 알 거시오 <筆 2:48ㄱ>

(8)의 예는 두 가지 점에서 필사본과 목관본의 번역이 차이 나는 경우이다. 첫째는 한문본의 S1과 S2에 대해서 목관본은 접속문으로 이해했지만, 필사본은 그렇지 않았다. 둘째는 ‘請’의 목적어 성분이 어디까지 걸리느냐의 문제로서, 목관본은 ㉗만 ‘請’의 목적어로 보는 데 비해 필사본은 ㉗와 ㉘ 모두를 목적어로 번역하였다.

(8) • S1[仍請㉗牌招禮當㉘舉行節目] S2[禮曹啓 定宗大王封太宗大王爲世子]

• S1[인ㅎ여 ㉗**네조 당상 패토흥물** 청ㅎ야 ㉘**결목을 거행ㅎ니**] S2[네죄 계스ㅎ되 덩중대왕겨오서 태중대왕을 봉ㅎ샤 세즈를 삼즈오시니] <木 1:5ㄱ>

• S1[영복이 인ㅎ야 ㉗**네조 당상 패토흥야** ㉘**결목 거행ㅎ물** 청ㅎ대] S2[네죄 계스ㅎ되 덩중대왕겨오서 태중대왕을 봉ㅎ오샤 세즈를 삼즈오시니] <筆 1상:4ㄱ>

(9)는 한문본의 ‘而已’의 해석과 관련되어 필사본과 목판본이 차이가 나는 예이다. 목판본은 한문본을 ㉞의 구조로 이해하여 앞의 ‘而已’를 ‘이리’로 번역하였지만, 필사본은 한문본을 ㉟의 구조로 이해하여 둘 다 ‘-을 쓰름이다’로 번역하고 있다.

- (9) • ㉞爲此疏者爲逆 而已在必討而已 ㉟爲此疏者爲逆而已 在必討而已
- 이 상소할 자는 역이 되어 이리 반드시 딩토흐기의 이슬 쓰름이라 (木 2:42ㄴ)
 - 이 상소는 역이 될 쓰름이오 반드시 딩토홀 쓰름이니 (筆 2:30ㄴ)

부정문의 번역과 관련하여서는 필사본과 목판본의 차이가 좀 더 드러난다. 한문본이 이중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목판본은 이를 그대로 번역하는 데 비해 필사본은 긍정문으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 (10) ㄱ. • 吠日射天之計 無不攘臂 擔當
- 폐일석턴하는 계교를 풀을 썬내어 담당티 아니미 업고 (木 2:61ㄴ)
 - 폐일석턴하는 계교를 풀을 썬내고 담당하야 (筆 2:44ㄴ)
- ㄴ. • 此莫非逆脉相貫義理斃滅之致
- 역적의 틱낙이 서로 께이고 의리 두멸하야 니뢰미 아닌 거시 업스니 (木 3:11ㄴ)
 - 역적의 틱낙이 서로 통흐고 의리 두절하야 니뢰미라 (筆 3:9ㄱ)

부정문의 번역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부정의문문과 관련된 것이다.

- (11) ㄱ. • 天大曰 其時汝豈不謂我以尹持平以無端事久謫 他人皆解謫而彼獨未解可矜 其所言頗無妨 而舉事不可獨爲 吾方求得人 汝亦求得可也乎
- 텨대 글오되 그 쎄에 네 날드려 니로되 윤지평이 무단흐 일노 오래 귀향 와 다른 사름은 다 풀니이되 데 홀노 풀니디 못흐니 블상흐고 그 니론 배 해롭디 아니흐니 일을 가히 홀로 못홀디라 내 보야흐로 사름을 구하여 어드니 너도 쏘흔 구하야 어드라 아니한다 (木 4:21ㄴ-22ㄱ)
 - 텨대 ㄱ로되 그 쎄에 네 날드려 닐오되 윤지평이 무단흐 일노 오래 귀향 와 풀니이디 못흐니 블상흐고 그 니르논 배 해롭지 아니흐니 홀노 못홀지라 내 사름을 구하여 어드니 너도 구하여 어드라 아니한다 (筆 4:17ㄱ)
- ㄴ. • 汝謂我曰 吾輩十餘人托稷 聚人各以口辯求募而情義相合然後以實告之云矣

- ㄴ. • 네 날드려 니르되 우리 무리 여라른 사름이 계라 일코고 사름 모화
정의상합흔 후에 실스로써 니르라 아니흐더냐 (木 4:13ㄴ)
- 네 날드려 니르되 우리 무리 여라른 사름이 계라 일코고 사름을 모화
정의상합흔 후의 실스로써 니르라 아니흐더냐 (筆 4:10ㄴ)

(11)의 ㄴ은 한문본의 ‘不謂 S’를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니로되/닐오되 S 아니흐다’로 번역한 예로서 한문 원문과 그에 대한 번역이 일치한다. 그러나 (11)의 ㄴ은 한문본에서 ‘S之云’이라 하여 긍정문으로 되어 있는 예를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모두 ‘S 니르라 아니흐더냐’와 같이 부정의문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처럼 한문본이 긍정문이지만,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부정의문문으로 번역하는 예들은 주로 供招, 그중에서도 面質의 상황에서 나타난다. 이는 부정의문문이 가지는 이른바 ‘확인 의문’의 기능과 관련된다.¹⁶⁾

IV. 『闡義昭鑑諺解』에 나타나는 근대국어 문법의 양상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은 같은 시기에 간행된 만큼 이들이 보여주는 언어 양상은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조명되기보다 근대국어의 한 면모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각각 다른 문법 형태 및 구조가 나타났을 때, 이것은 근대국어의 다양한 문법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조사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존칭의 주격조사인 ‘겨오셔/샤, -겨오셔/샤’와 주격조사 및 보격조사의 예로 쓰이는 ‘가’의 용법이다. 이와 함께 ‘로셔, -의/에서, -으로 겨오셔/겨오샤’의 용법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겨오셔/샤, -겨오셔/샤’의 예를 보자. 목판본에서는 ‘겨오셔/

16) 다음의 예는 한문본에서는 긍정문인 ‘S云’으로 되어 있는 예를 목판본에서는 ‘S 아니흐더냐’로, 필사본에서는 ‘S 흐더냐’로 번역한 예이다. 필사본의 번역은 한문본의 원문에 충실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역으로 볼 수 있다.

- 汝雖衙前 若爲右營將 豈不好乎云耶
- 네 비록 아전이나 만일 우영장을 흐면 엇디 도티 아니리오 아니흐더냐 (木 4:11ㄴ)
- 네 비록 아전이나 만일 우영당을 흐면 엇디 좃티 아니리오 흐더냐 (筆 4:9ㄴ)

샤의 형태가, 필사본에서는 ‘-겨오셔/샤’의 형태 및 ‘-겨오셔/샤’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필사본의 경우 ‘-겨오셔/샤’보다는 ‘-겨오셔/샤’의 형태가 훨씬 더 많다.¹⁷⁾

- (12) ㄱ. • 定宗大王封太宗大王 爲世子
- 명종대왕겨오셔 태종대왕을 봉하샤 세즈를 삼즈오시니 <木 1:5ㄱ>
 - 명종대왕겨오셔 태종대왕을 봉하오샤 세즈를 삼즈오시니 <筆 1상:4ㄱ>
- ㄴ. • 惟我聖上深惟宗社之大計
- 우리 성상겨오샤 김히 종사의 큰 계교를 칭각하오샤 <木 1:55ㄱ>
 - 오디 우리 성상겨오샤 김히 종사의 큰 계교를 칭각하오샤 <筆 1상:41ㄴ>
- ㄷ. • 我景廟盛德至仁 自在春宮友愛純篤
- 우리 경묘겨오샤 성하오신 덕과 지극히 어디오시기로 춘궁의 겨오실 적브터 우의 순독하오샤 <木 1:56ㄴ-57ㄱ>
 - 우리 경묘겨오샤 성하오신 덕과 지극히 어지오시미 춘궁의 겨오실 적브터 우의 순독하오샤 <筆 1상:43ㄱ>
- ㄹ. • 渠之所爲或恐東宮有所親都
- 제 하느 바를 혹 동궁이 친히 보오실가 저허 <木 2:44ㄱ>
 - 제 하느 바를 동궁겨오셔 친히 보오실가 저허 <筆 2:31ㄴ>

위의 예에서 보듯이 존칭의 주격조사가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형태를 달리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아직 이들의 형태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존칭의 주격조사 ‘-겨오셔’는 동사 ‘겨샤’의 ‘겨’와 선어말어미 ‘-습-’의 이형태 ‘-오-’의 결합에서 문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¹⁸⁾, 존칭의 주격조사의 다양한 형태들은 필사본과 목판본에 나타나는 ‘겨샤’의 이형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목판본이나 필사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겨오샤’이지만, 목판본에서는 이 외에도 ‘겨샤’가, 필사본에서는 ‘겨오샤, 겨샤, 계샤’가 나타난다. 이 중 필사본에만 나타나는 ‘겨오샤’가 필사본에만 나타나는 존칭의 주격조사 ‘-겨오셔/샤’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17) 근대국어에서 ‘-겨오셔’와 ‘겨오샤’는 주로 왕실 관련 문헌들, 예를 들면 윤음류나 『계축일기』 등에서 주로 보인다. 그 외의 문헌에서는 ‘-겨샤’나 ‘겨샤’가 좀 더 일반적이다. 필사본에 나타나는 ‘-겨오셔’, ‘겨오샤’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18) 이에 대해서는 이태영의 다음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태영,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한신문화사, 1988); 이태영, 「근대국어 ‘-피셔’, ‘-겨샤’의 변천 과정 재론」, 『주시경학보』 8(담출판사, 1991), 88-107쪽.

수 있는데, 이것은 선어말어미 ‘-습-’의 이형태인 ‘-으오-’가 필사본에서만 나타나는 것과도 관련된다.¹⁹⁾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존칭의 주격조사는 ‘증성(慈聖), 동도(東朝), 성상(聖上), 동궁(東宮)과 같이 왕실 관련 인물과 관련된 명사에만 결합된다. 필사본과 목판본의 존칭의 주격조사의 결합 유무는 대체로 대응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다음의 예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인다.

- (13) ㄱ. • 今我主上殿下受皇天付畀重
 • 이제 우리 주상 **던해** 황천의 맞디오신 등흔 거슬 바즈오시고 (木 1:1ㄱ-)
 • 이제 우리 주상 **던해겨으오서** 황천의 맞디오신 등흔 거슬 바즈오시고 (筆 1상:1ㄱ)
- ㄴ. • 初年歲抄付籤非皇兄之有意
 • 초년 세초의 부첨호오시른 **황형이** 유의호오시미 아니라 (木 論纂:4ㄱ)
 • 초년의 세초 부첨호오시기는 **황형겨오서** 유의호오시미 아니라 (筆 論纂:3ㄱ)

실제로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존칭의 주격조사가 대응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모두 존칭의 주격조사가 결합되거나, 목판본에는 결합되지 않고 필사본에만 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필사본의 경우 왕실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존칭의 주격조사 결합이 좀 더 엄격하게 지켜졌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사 ‘-가’의 예를 보자. 『闡義昭鑑諺解』에서 ‘-가’는 필사본에서만 보이는데²⁰⁾, 모두 6회가 나타난다. ‘-가’는 모음으로 끝나며²¹⁾, 대체로 무정물을 가리키는 명사와 결합되고 있다. (14)의 ㄱ은 무정물과, (14)의 ㄴ은 유정물과 주격조사 ‘-가’가 결합된 예이고, (14)의 ㄷ은

19)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의 ‘조선시대 한글판지 사업단’에서 주최한 특강 (2010년 9월 14일 2시-6시, 한국학중앙연구원 Guest House A회의실)에서 조용선 선생님은 ‘조선시대 봉서의 유래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조용선 선생님은 자신의 스승님인 윤백영 여사(순조의 셋째 따님인 덕온공주의 손녀)로부터 왕실 관련 인물들이 보는 문헌에는 ‘-으오-’를 쓰는 것이 관례였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다고 하셨다. 이러한 설명은 필사본이 대왕대비전에 진상한 책이었다는 점(옥영정, 앞의 글), 선어말어미 ‘-으오-’가 필사본에만 나타나는 점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20) 홍윤표는 『闡義昭鑑諺解』에서 주격조사 ‘-가’의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홍윤표, 앞의 글, 9쪽).

21) 『闡義昭鑑諺解』 필사본에서 ‘-가’와 결합되는 명사는 ‘음귀, 희, 혜, 죄, 니, 와쥬’가 있다.

‘되다’ 구문의 보어 NP에 ‘-가’가 결합된 것이다.

- (14) ㄱ. • 盖自壬寅五月議勳 經年不決
 • 대개 임인 오월노브터 녹훈을 의논하야 히 다나도록 결단티 못하엿더니
 〈木 1:74ㄴ〉
 • 대개 임인 오월노브터 녹훈을 의논하야 히가 다나도록 결단을 못하엿더니
 〈筆 1하:14ㄴ〉
- ㄴ. • 惠方聚軍謀逆於春川矣
 • 혜 비야흐로 군을 모화 춘천서 모역을 하느이다 〈木 4:50ㄴ〉
 • 혜가 비야흐로 군스를 모화 춘천서 모역을 하느이다 〈筆 4하:3ㄴ〉
- ㄷ. • 逆鏡之從孫道爲窩主
 • 역경의 종손 되 외쥬 되여 〈木 4:50ㄱ〉
 • 역경의 종손 도란 놈이 외쥬가 되여 〈筆 4하:3ㄱ〉

다음으로 ‘-로셔, -의/에서, -으로 겨오셔/겨오샤’의 용법을 살펴보자. 이들은 마치 주격조사로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로셔’는 일반적으로 ‘출발점’ 혹은 ‘자격’의 조사로 쓰이는데²²⁾, 아래의 예와 같이 주격조사처럼 보이는 예들도 확인된다.

- (15) ㄱ. 외신으로 환시 테결하미 실노 국도의 잇디 아니흐 배오 환첩으로셔 동궁 해하기를 쇠하미 썩 왕첩의 잇디 아니흐 배니(外臣而締交窻侍實是國朝所未有 窻妾而謀害東宮又是往牒所未有) 〈木 1:56ㄴ〉
- ㄴ. 그 세 황형 진어호신 배 동도 보내오신 배 아니라 이에 어뎡로셔 공진하은 거신 줄을 아온디라(乃知其時皇兄所進御者非東朝所送 乃御廚供進者也) 〈木 諭纂 2ㄴ-3ㄱ〉

(15)의 ㄱ은 ‘동궁 해하기를 쇠하-’의 주어가 ‘환첩으로셔’인 것으로 보이

22) ‘-로셔’가 ‘출발점’의 처격조사로 쓰이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ㄴ)에서 목관본의 ‘-로셔’가 필사본에서 ‘-의’에 대응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 ㄱ. 밤의 혹 너를 만나 뜨르면 지의 집으로셔 오노라 아니하더나(夜或逢汝問之 則以爲自尹持平家來矣) 〈木 4:22ㄴ〉
- ㄴ. • 考輝疏筭寔同出於患得患失無所不至之心
 • 태구와 봉휘의 상소와 차직 실노 험가디로 벼슬 엇고 일키를 근심하야 니르디 아닐 배 업슨 모음으로셔 나시며 〈木 1:19ㄴ〉
 • 태구와 봉휘의 상소와 차직 실노 험가지로 환득환실하야 무소보지흐 모음의나 〈筆 1상:15ㄱ〉

지만, 이 예문은 사실상 ‘NP는 NP로서 V’ 구문이다.²³⁾ 이 예의 선행 문맥은 ‘상검은 문을 다다 써 문침호오시는 길홀 막고 석널은 패만호 말을 지존 압히 방즈히 호야 므룻 써 금상던하 해호을 바를 니르디 아니호 배 업스니(尙儉則閉門以塞問寢之路 石烈則肆其悖言於至尊之前 凡所以害命上殿下者靡所不至) 〈木 1:56ㄱㄴ〉’인데, 이를 보면 (15)의 ㄱ의 ‘외신으로 환시 테결호미’는 ‘상검은 외신으로 환시 테결호미’로, (15)의 ㄴ의 ‘환첩으로서 동궁 해호기를 쇠호미’는 ‘석널은 환첩으로서 동궁 해호기를 쇠호미’와 같은 구조로 이해된다. (15)의 ㄴ의 ‘어듀로서’는 ‘공진호-’의 주어로 보인다. 특히 ‘어듀로서 공진호-’는 선행절의 ‘동도 보내오-’와 대구를 이루는데, 여기서 ‘동도’가 주어로 기능하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예의 ‘-로서’는 ‘자격’의 조사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²⁴⁾

다음은 ‘-의/에서’의 예이다. 다음의 (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예들은 이른바 ‘단체주격’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6)의 ㄱ에서는 ‘NP’에 ‘NP의서’가 대응되지만, (16)의 ㄴ에서는 ‘自NP’에 ‘NP의/에서’가 대응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처격조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 (16) ㄱ. • **본부의서** 튜국홀 제 다시 뜨르되(本府推鞫更問) 〈木 4:45ㄱ〉
 ㄴ. • **自本府**爲之而其所取招則不可不嚴庭鞫之
 • **본부의서** 호되 그 토스 맞기를 가히 엄히 아니터 못홀 거시니 덩국을 호라 〈木 2:16ㄱ〉
 • **본부에서** 호되 그 토스 맞기를 가히 엄히 아니터 못홀 거시니 덩국을 호라 〈筆 2:11ㄴ〉

마지막으로 ‘-으로 겨오셔/겨오샤’의 예를 보자. 이 예는 『**闡義昭鑑**

23) 이 예와 같이 ‘NP는 NP로서 V’의 구문을 가지는 예는 다음과 같다.
 ㄱ. 일좌는 홍탁의 아들이오 **년좌의 겨릭로서** 적당의 드다 호니(日佐弘澤之子麟佐之族居果川入賊黨云) 〈筆 2:17ㄴ〉
 ㄴ. 스성은 **평안병소로서** 니어 나라나물 도모호고 남태딩은 **금군별장으로** 너응이 되물 언약호니(李思晟以平安兵使方圖繼起 南泰徵以禁軍別將約爲內應) 〈筆 3:2ㄴ〉
 24) ‘-로서’의 예가 대부분 ‘자격’의 의미를 갖는 ‘NP는 NP로서 V’ 구문에 나타나거나 출발점의 처격조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闡義昭鑑諺解**』에서 ‘어듀(御廚)’는 반드시 ‘어듀로서 V’의 구문으로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이것은 이 예의 ‘어듀로서’가 이른바 ‘단체주격’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다.

『諺解』에서 (17)에 보인 예 한 번만 나타나지만, (18)에 보인 바와 같이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이 왕실 관련 문헌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 • 國家以維賢威聯王室待之優厚

• 나라호로 겨오셔 유현이 왕실의 척년호므로써 뒤접호오시기를 우후이 호오시되 <木 3:1<

• 나라호로 겨오샤 유현이 왕실의 척년호므로써 뒤접호오시기를 우후이 호오시되 <筆 3:1<

(18) ㄱ. 불민호여 성의에 어긋은 일이 이셔도 넉던으로 겨오샤 스이에서 도도록 쓰려가니 <계축 상 3>

ㄴ. 이 책의 우호로 겨옵셔 담휘 왕너호샤 잠간 감호며 잠간 더호시니(是時自^上上痰候往來 乍減乍劇) <明義 卷首上 50<

ㄷ. 이제 우호로 겨오셔 특별이 던교를 느리오샤(今若自^上嚴禁) <가체 4>

ㄹ. 우호로 겨오셔 단연이 결정호샤 윈 나라 안호로 호여곰 다시 들너를 니지 아니케 호시면(若自^上斷然決定 使一國之內不戴鬢髻) <가체 5>

형태상으로 볼 때, ‘-으로 겨오셔/겨오샤’는 ‘-로’와 ‘이시-’의 활용형인 ‘셔’가 결합한 ‘-로셔’와 유사하지만, ‘-로셔’는 일반적으로는 주격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또한 ‘-으로 겨오셔/겨오샤’와 같이 동사에서 문법화된 표현의 경우 해당 동사의 구문 유형과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²⁵⁾, 이 예는 ‘NP이 NP로 겨오셔/겨오샤’ 구문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NP이 NP로 겨오셔/겨오샤’ 구문의 ‘NP로’는 ‘以NP’에 대응되지만, ‘NP로 겨오셔/겨오샤’의 ‘NP로’는 ‘自NP’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의 (16), (17)에 나타난 ‘-으로 겨오셔/겨오샤’는 왕실 관련 문헌에서 제한적으로 쓰였던 것으로, ‘자격’의 조사

25) 『開義昭鑑諺解』에서 ‘겨시-’ 구문은 ① ‘NP이 NP이 겨시-’ 구문(ㄱ), ② ‘NP이 NP에 겨시-’ 구문(ㄴ), ③ 완료의 ‘V-아 겨시-’ 구문(ㄷ)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④ ‘NP이 NP로 겨시-’ 구문(ㄹ)을 확인할 수 있다.

ㄱ. 호믄며 우리 조종겨오오셔 일즉이 임의 헝호오신 전네 겨오시니(況我祖宗曾有已行之典) <開義_筆 1상:1<

ㄴ. 그 책의 태조대왕이 비야호로 상왕 위에 겨오시니(抑其時 太祖大王方在上王之位) <開義_木 1:5>

ㄷ. 성상이 이제 이의 궤하 쳐단호야 겨오시니(聖上今已夫賜處斷) <開義_木 1:52<

ㄹ. 이는 네 중조부 부음으로 겨오실 책 구룡덩이라 호는 덩즈를 지어 겨오시더니 <음병 54>

‘-으로’와 ‘겨오시/겨오시-’의 활용형이 굳어진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어미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에는 ‘-습니다, -습니다, -데다’와 같은 어미가 나타나는데²⁶⁾, 다음 (19)가 그 예이다. 『闡義昭鑑諺解』에서는 이러한 어미가 목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필사본에서만, 그것도 공초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필사본, 특히 필사본의 공초에 대한 언해가 다른 부분에 비해 좀 더 구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9) ㄱ. • 臣則斟酌知其與嵇家所得者一般矣
 • 신은 짐작하야 그 희의 집의서 어든 바로 흥가딘 줄 아랫습는다
 〈木 3:18ㄴ〉
 • 의신은 짐작하여 그 희의 집의서 어든 바로 흥가진 줄을 알아습는다
 〈筆 3:14ㄴ〉²⁷⁾
- ㄴ. • 光學居陽川 鄭權居峻之洞內 李世鉉亦知其近在東矣
 • 광혹은 양천 잇고 정권은 준의 동너의 잇고 니세현도 쏘 근동의 잇는 줄 아는이다 〈闡義4:61b〉
 • 광혹은 양천 잇고 정권은 준의 동너의 잇고 니세현도 쏘 그 근동의 잇는 줄 아습는다 〈筆 4하:13ㄱㄴ〉
- ㄷ. • 與峻侄相會而寅濟亦或相會矣
 • 준과 전으로 디브러 서로 모힐 제 인제도 혹 서로 모히더이다 〈木 4:61ㄱ〉
 • 준과 전으로 디브러 서로 모힐 제 인제도 혹 서로 모히데다 〈筆 4하:12ㄴ〉

26) 근대국어 시기에 이들 종결어미는 그 예가 그리 많지 않은데, 『闡義昭鑑諺解』 외의 문헌에서는 주로 구어적 성격이 강한 문헌이나 구어적 성격이 드러나는 문맥에서 확인된다.

ㄱ. 아버의 괴별 모르니 안부 어디 드러라 왔습닌 〈癸丑 하 32ㄱ〉

ㄴ. 正官은 비말미하여 인스 몰라 아리 누어습닌 〈捷解 初 1:15ㄴ〉

ㄷ. 칭심이나 茶禮스 날 종용히 뵈옵고 니즌 스이 업시 僉官들의 니르고 잇습는다
 〈捷解 初 2:17ㄱ〉

ㄹ. 내 서방을 닷가 이제 왕칭을 어드니 덕을 감득호미 헤아림 업다 호테다 〈勸念 23ㄴ〉

27) 필사본의 ‘-습는다’의 다른 예들은 각각 ‘-는이다, -는니이다’에 대응된다.

『**闡義昭鑑諺解**』에서 ‘-은디’는 주로 ‘알-’ 구문의 보문의 어미로서 나타나지만, 이와는 다른 용법의 예도 보인다.

(20) ㄱ. 데왕가는 계서로써 동호를 삼고 눈치 도로혀 경호여 **그리호오신디** 그
 세의 태조대왕이 브야호로 상왕 위에 겨오시니 지존이 압호오신 바의
 세즈로 칭호오미 혐의 업스와 **그리호오신디** 오늘날 스세 일로 더브리
 잠간 다르오니 쏘호 인거호여 전례를 삼기 어려온디라(豈以帝王家以繼序爲
 重倫次反輕而然耶 抑其時太祖大王方在上王之位 至尊所壓無嫌於世子之稱而
 然耶 今日事勢與此稍異亦難引以爲例) 〈木 1:5ㄱ-〉²⁸⁾

- ㄴ. • 所謂末後一事者果指何事 所謂國人疑惑者果有何說
- 니론 바 말후일식 과연 므슴 일을 ㄱ러터시며 니론 바 국인의 의혹은
 과연 무슴 말이 **잇논고** 〈木 1:30ㄱ〉
- 니론 바 말후일식 과연 므슴 일을 ㄱ러터시며 니론 바 국인의 의혹은
 과연 무슴 말이 **잇논디** 〈筆 1상:22ㄴ-23ㄱ〉

(20)의 ㄱ은 연결어미 ‘-은디’가 반복된 구문이다.²⁹⁾ (20)의 ㄴ은 목판본
 에서는 ‘-논고’로, 필사본에서는 ‘-논디’로 번역되어 있는 예이다. 필사본
 의 ‘-은디’를 목판본의 ‘-은고’와 같은 직접 의문형어미로 파악한 것으로
 본다면, 이 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³⁰⁾

『**闡義昭鑑諺解**』에서는 명사형어미 ‘-기’의 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다. 이와 관련하여 ‘원인’의 연결어미 ‘-기로’와 ‘-기에/의’의 예도 볼
 수 있다. 목판본은 ‘-기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기에’는 1회만
 나타나는 데 비해, 필사본은 ‘-기로’나 ‘-기의’가 비슷하게 보인다. 아래의
 (21)이 그 예인데, 특히 (21)의 ㄷ은 ‘-기로’와 ‘-기의’가 대응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8) ‘-은디’의 번역에 대해서는 필사본도 목판본과 같다.
 29) 이 예는 대응되는 한문본의 문장이 모두 어조사 ‘耶’로 끝나 있음이 주목된다. 『**闡義昭鑑諺解**』에서 한문본의 ‘耶’로 끝난 문장은 직접 의문형어미인 ‘-가, -고, -냐, -니’ 등으
 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아디 못거이다 태구의 드러온 연유를 어디로
 조차 시러곰 텃팅의 스못차 이 거죄 잇기의 니르러습논디(未知泰考入來之由從何得徹
 於天聽而致有此舉耶) 〈木 1:40ㄱ〉와 같이 ‘알-’의 보문에 나타난 ‘-은디’가 ‘耶’로 끝나
 는 문장에 대응되는 경우도 1예 보인다.
 30) ‘-을디’가 종결어미로 나타나는 예는 17세기 후반에 확인되며, ‘-은디’나 ‘-을디’가 종결
 어미로서의 용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19세기 말 이후이다. 이지영,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3(국어학회, 2008), 132-134쪽.

- (21) ㄱ. • 汝家有此事而汝嫡從使稽探問於西學洞云云故
- 네 집의 이 일이 **잇기로** 네 덕스촌이 히로 햏여곰 서혹동의 탐문햏다 햏엿느니라 햏느고로 <木 3:20ㄱ>
 - 네 집의 이 일이 **잇기로** 네 덕스촌이 히로 햏여곰 서혹골 와 탐문햏다 햏엿거늘 <筆 3:15ㄱ>
- ㄴ. • 凶書欲於二月動駕時呈於上言中 因志事出未果矣
- 흉서를 이월 동가햏실 제 상언 동의 명햏고더 햏다가 지의 일이 **나기에** 못햏엿느이다 <木 4:55ㄴ>
 - 흉서를 이월 동가햏오실 제 상언 가운데 정햏고져 햏옴다가 지의 일 **나기의** 못햏엿습고 <筆 4하:7ㄴ>
- ㄷ. • 寅濟自幼時便同養育 發配時往見
- 인제는 어려실 제브터 길러내드시 **햏엿습기로** 제 발빅힐 제 의신이 가 보왓스오니<木 4:58ㄱ>
 - 인제는 어린 제브터 길러내드시 **햏엿습기의** 제 발빅힐 제 의신이 가 보와스오니<筆 4하:10ㄱ>

그러나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에서 ‘-기로’나 ‘-기의’가 위의 예와 같이 항상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목판본이나 필사본의 어느 한쪽만 ‘-기로’나 ‘-기의’로 번역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달리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다.³¹⁾

3. 인용문

통사적인 측면에서 『**闡義昭鑑諺解**』의 자료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가장 두드러진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인용문이라고 할 수 있다. 『**闡義昭鑑諺解**』는 그 내용이 대부분 상소, 전지(傳旨), 공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의 통사구조는 인용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권4에 주로 보이는 공초 부분은 발화자 1명이 어떠한 사실을 아뢰는 단순한 인용문의 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화 내용을 포함하여 아뢰는, 즉 인용문 안에 다시 인용문이 내포되는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면질(面質)의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 각각의 인용문으로 되어 이 시기의

31) ‘동닌 고로/동닉기의, 못햏기로써/못햏므로써, 출계햏야시니/출계햏엿기의, 못고더 햏는 말을 와 니르기로/못고져 햏노라 햏옴거늘(欲問之說來言故)’과 같은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

언어의 구어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闡義昭鑑諺解』에 나타난 인용문 중 몇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22)는 인용문 안에 다수의 인용문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예이다.

- (22) • S1[廷玉供 S2[②臣問尙儉曰 金參議卽朝士 何故來耶] S3[尙儉曰 S4[金參議言④ㅍㅍ方欲應旨陳疏 批答何以則速下 若遲下則事無益矣] S5[④曰曰城主分付如此 若預知疏入時則出納之祭當有周旋之道云矣]]
- S1[덩옥이 공스ㅎ되 S2[②신이 상검드러 므르되 김참의는 도식라 무슴 연고로 오노노 ㅎ니] S3[상검이 곶오되 S4[김참의 니르되 ④내] ㅅ야호로 응지ㅎ여 단소코더 ㅎ니 비답을 었디 ㅎ면 썸니 느리게 ㅎ고 만일 더디 느린즉 일이 무익ㅎ리라 ㅎ거늘] S5[④내] 곶오되 성쥬 분뷔 이러ㅎ니 만일 상소 들 썸를 미리 알게 ㅎ면 출납ㅎ 즘음에 맞당히 쥬션ㅎ 도리 이시라라 닐럿노라] ㅎ더이다]] 〈木 2:48ㄱㄴ〉

(22)는 심정옥(沈廷玉)의 공초이다. 심정옥의 공초인 S1은 크게 심정옥이 박상검(朴尙儉)에게 묻는 내용인 S2와 박상검의 대답인 S3로 이루어져 있는데, S3는 다시 김참의, 즉 김일경(金一鏡)이 박상검에게 한 말인 S4와 이에 대한 박상검의 대답인 S5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장 내에서 대명사 ‘②臣’은 심정옥, ‘④ㅍㅍ’는 김일경, ‘④曰’는 박상검을 가리킨다. 또한 각 문장 내에서 인용동사의 번역을 살펴보면, S1은 ‘공스’가 ‘공스ㅎ되 S’로, S2는 ‘問S’가 ‘므르되 S ㅎ니’로, S3는 ‘曰S’가 ‘곶오되 S ㅎ더이다’로, S4는 ‘言S’가 ‘니르되 S ㅎ거늘’로, S5는 ‘曰S云’이 ‘곶오되 S 닐럿노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인용문은 실제 발화를 그대로 구현하여 전달하는 것이고, 간접인용문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법적 장치 중 어떤 것이 이러한 구분을 나타내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예들 중 ‘자리채우미(placeholder)’³²⁾ 및 경어법과 관련된 예들을 살펴보자.

다음 (23)은 실제 발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용문에서 드러나지 않고, 일종의 대용표현인 ‘여츠여츠ㅎ-’와 부정사 ‘아므’로 지시된 예이다.

32) 자리채우미는 “어떤 자리를 임시방편으로 채울 때 사용되는 언어요소”로서(박진호, 「자리채우미(placeholder)에 대한 補論」, 2010년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 원고, 2010) 본고에서 제시한 ‘여츠여츠ㅎ-’와 ‘아므’의 예들이 이에 해당된다.

- (23) ㄱ. 그 후의 히 증을 가 보고 [...] 인하여 말하되 제 집의 투서헌 거시 이서 **그 스의 여츠여츠하다** **흐믄** 증으로 하여곰 그 글 뜻이 서로 합하믈 괴어하 너겨 비분의 므음을 움죽이과더 **히미라**(其後嵇往見增 [...] 而仍言渠家有投書 其辭意如此如此者 欲使增異其書意之相合 動其非分之心也) 〈木 3:21ㄴ〉
- ㄴ. 네 니르되 **아므** 편이니 **박야**호로 오는 **아므** 하나 후 후잇 **아므** 히어나 이 일이 이시리라 **흐고**(汝曰 **某**邊而方來**某**年或後**某**年有此事矣) 〈木 4:9ㄱ〉
- ㄷ. 응진이 곁오되 다만 **네** 신위 **아므** 히에 도티 아니타 니를 썬이오 일변 인 만히 죽으리란 말은 아니 **흐엿노라**(應振曰 只言**汝**之身數**某**年不好而已 元無一邊人多死之說矣) 〈木 4:9ㄴ〉

(23)의 ㄱ은 권혜(權嵇), 권집(權縑), 권선(權縑)의 공초 내용 다음에 나오는 평론의 일부이다. 이 예에서 ‘여츠여츠하다’로 표현된 것은 앞서의 권선의 공초에서 권혜(權嵇)가 투서사건과 관련하여 말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23)의 ㄴ과 (23)의 ㄷ은 임국훈(林國薰)과 윤응진(尹應振)의 면질 중 일부이다. (23)의 ㄴ은 임국훈이 윤응진에게 묻는 내용으로서 인용문에서는 실제 발화의 구체적 내용 대신 부정사 ‘아므(某)’로써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 나타난 대응 표현과 부정사의 존재가 해당 인용문이 간접인용문임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23)의 ㄷ의 윤응진의 답을 보면, 2인칭대명사 ‘네(汝)’가 나타나 있는 분명한 직접인용문이지만, 부정사 ‘아므’도 함께 나타나 있다.

다음의 (24)는 인용문의 경어법을 살펴볼 수 있는 예이다.

- (24) 히 공스히되 [...] 신이 가더 신의 아자비 권집을 띄여 곁오되 **이거시 하닐 글이나 사람의 글이나**(嵇供 [...] 臣持示臣叔權縑曰 **此天書乎人書乎**) 〈木 3:15ㄴ-16ㄱ〉

(24)는 권혜(權嵇)의 공초 일부이다. 인용문은 권혜가 자신의 숙부인 권집(權縑)에게 묻는 내용인데, 권혜와 권집 간의 경어법적 지위가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해당 인용문이 간접인용문이기 때문에 경어법 관련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을 수 있다. 둘째는 해당 내용이 공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심문하는 관리, 권집, 권혜의 관계에서 일종의 압존법으로서 권혜가 숙부인 권집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번역과 근대국어 문법이라는 관점에서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을 비교·고찰하였다.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의 비교는 텍스트 구조 및 번역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문법의 관점에서는 필사본과 목판본이 보여주는 근대국어 문법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열 순서는 한문본과 필사본이 같다. 권1과 권4에 대해서 필사본만이 권1을 ‘권지일상’과 ‘권지일하’로, 권4를 ‘권지스’와 ‘권지스하’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목판본과 차이를 보인다. 텍스트 구분 표지를 보면, 목판본보다는 필사본이 한문본과 다른 경우가 더 많다.

둘째, 주석이나 내용은 필사본에서 더 많이 생략된다. 필사본은 목판본과 달리 이두식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臣’을 ‘의신’으로 번역하는 데서 드러난다. 또한 필사본은 인명 뒤에 결합되는 접미사 ‘-이’가 나타난다는 특징도 보인다. 이중부정문의 경우 필사본은 긍정문으로, 목판본은 이중부정문으로 번역하는 경향을 보인다. 목판본이나 필사본 모두 인용문에 나타나는 긍정의문문을 부정의문문으로 번역함으로써 ‘확인의문’의 기능을 강조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셋째, 필사본이나 목판본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대국어 문법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조사의 경우 ‘-겨오셔/샤, -겨으오셔/샤, ‘-가’, ‘-로셔’, ‘-의/에셔’와 함께 ‘-으로 겨오셔/겨으오샤’의 용법을 살폈다. 존칭의 주격조사 ‘-겨으오셔/샤’는 필사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목판본에 나타나지 않는 선어말어미 ‘-으오-’와 관련된 것이다. 조사 ‘-가’도 필사본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이다. 주격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으로 겨오셔/샤’는 왕실 관련 문헌에서 제한적으로 쓰인 것으로 자격의 조사 ‘-으로’와 ‘겨오셔’의 활용형이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어미의 경우 ‘-습니다, -습디다, -데다’, ‘-은디’, ‘-기로’와 ‘-기에/의’의 용법을 살폈다. ‘-습니다, -습디다, -데다’와 같은 어미는 목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필사본에서만 확인된다. 통사적 측면에서는 인용문을 중심으로 복잡한 인용문 구조의 예와 자리채우미 및 경어법과 관련된 예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闡義昭鑑諺解』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 『闡義昭鑑』(장서각본, K2-297).
- 『闡義昭鑑諺解』 목판본 (규장각본, 奎1118).
- 『闡義昭鑑諺解』 필사본 (규장각본, 奎2214).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규장각 한국본 도서 해제』 IV(史部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1.
- 박진호, 「자리채우미(placeholder)에 대한 補論」. 2010년도 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 원고, 2010.
- 옥영정, 「『闡義昭鑑』의 간행 과정과 서지적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10년 제3차 국내학술회의(『闡義昭鑑』과 영조시대의 정치·문화사) 발표 원고, 2010.
- 이지영, 「-은지와 -을지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3, 국어학회, 2008, 113-140쪽.
- 이태영, 「주격조사 ‘가’의 변화 기제에 대하여」. 『국어문학』 25, 국어문학회, 1985, 607-627쪽.
- _____,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1988.
- _____, 「근대국어 ‘-의서’, ‘-겨서’의 변천 과정 재론」. 『주시경학보』 8, 탑출판사, 1991, 88-107쪽.
- 정승철, 「《闡義昭鑑諺解》의 異本 比較」. 『규장각』 1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0, 39-58쪽.
- 홍윤표, 「주격조사 ‘가’에 대하여」. 『국어학』 3, 국어학회, 1975, 65-91쪽.
- _____, 「『闡義昭鑑諺解』 해제」. 『闡義昭鑑諺解』(영인본). 홍문각, 1984, 1-10쪽.

국 문 요 약

한문본인 『闡義昭鑑』에 대한 언해인 『闡義昭鑑諺解』는 필사본과 목판본의 두 이본이 존재한다. 본고는 텍스트의 구조, 번역, 그리고 문법의 관점에서 『闡義昭鑑諺解』의 필사본과 목판본을 비교·고찰하였다.

번역의 형식적 측면인 텍스트의 체제를 보면 한문본과 필사본이 유사하지만, 텍스트 구분 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문본과 목판본이 유사하며, 주석이 반영되는 양상에서도 목판본이 한문본을 더 잘 반영한다. 필사본의 번역은 한자어나 한문 구조가 노출되는 직역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두식 단어의 빈번한 사용은 목판본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필사본과 목판본은 한문본의 통사구조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에 대해 어떤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부정문의 번역에서는 목판본은 한문본의 이중부정문을 그대로 번역하는 반면, 필사본은 이를 긍정문으로 번역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또한 한문본에서 긍정문으로 기술된 예를 목판본과 필사본 모두 ‘확인의문’의 기능을 드러내는 부정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도 특징적인데, 이것은 주로 공초, 특히 면질의 상황과 관련된 문맥에서 나타난다.

목판본과 필사본은 모두 근대국어 문법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인용문의 다양한 양상은 이들에게서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필사본과 목판본의 차이는 주격조사 ‘-겨오셔/샤’나 ‘가’, 종결어미 ‘-습니다, -습니다, -데다’가 필사본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고일 2010. 10. 4.

수정일 2010. 11. 3.

게재 확정일 2010. 11. 15.

주제어(keyword) 천의소감(*Cheonuisogam*), 천의소감언해(*Cheonuisogameonhae*), 이본(different versions), 필사본(a manuscript version), 목판본(a woodblock-printed version), 번역(translation), 근대국어문법(grammar in Modern Korean)